

2013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II)

소속 학교	고등학교	수험 번호	성 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의 소비자는 친숙한 제품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욕망한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소비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현실 속에서는 마주치지 못했던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몽상 속에서 경험했으나 현재의 친숙한 제품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쾌락을 새로운 제품에 투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신'제품이 새로운 효용이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형태의 소비이건 그 행위를 통해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제품에 대해 '새롭다'는 인상을 가짐으로써 잠재적 소비자는 자신이 꿈꿔오던 쾌락의 일부를 그 제품에서 발견하며, 그것을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제품과 꿈을 동일시함으로써 제품은 '욕망'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꿈꿔오던 몽상이 실현된다는 것은 해당 제품에 강렬한 열망이 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견상 드러나는 소비 쾌락주의는 지극히 부분적인 모습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소비행위는 소비자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환상과 현실의 이 같은 역동적 상호작용은 근대 소비주의와 쾌락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둘 간의 긴장은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더 나은 것'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열망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든다. 소비자에게 있어 욕망을 지향하는 몽상은 미래를 환상으로 가득 찬 현재로 변모시킨다.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의 사이클을 반복하기보다 환상 속의 쾌락과 경험적 쾌락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한다. 그들이 현실에서 겪는 경험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더욱 즐거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환상 속에서 그것을 조정한다. 따라서 환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로부터 생겨나는 기대는 현실보다 흥미롭다.

이러한 역동성은 다른 소비자들의 활동과 거의 관계가 없으며, 그 동인을 유지하는데 있어 모방이나 경쟁 심리도 필요 없다. 이처럼 '욕망-획득-사용-각성-갱신된 욕망'이라는 사이클은 근대 쾌락주의의 특징이며, 의복이나 음반 같은 문화상품의 소비만큼이나 낭만적 대인관계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특징은 '비가시적' 소비와 '과시적' 소비 모두에서 나타난다. 비록 다른 소비자의 활동과 태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품에 욕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는 지위나 위신을 추구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어떤 전제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근대 소비주의 정신을 대변하였다. "인생에는 두 개의 비극이 있다. 하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나] 사유 재산 제도가 발견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경제 활동은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인간들 간의 투쟁의 성격을 보인다. 통상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이 투쟁을 주로 생존을 위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관행이다. 의심할 바 없이 산업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같은 이해가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 효율성이 크게 신장된 오늘날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선 부의 축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 같은 추가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투쟁을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한 경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화의 소비를 통해 욕신의 안락함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재화의 획득과 축적의 궁극적 목표는 통상 축적된 재화의 소비로 여겨진다. 재화를 소유한 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든 그의 가계에 속한 식구들이 소비하는 것이든 말이다.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정당한 재화 획득의 목표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의 소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소비는 물론 소비자의 욕신적인 욕구, 즉 욕신의 안락함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소위 더 고등한 욕구, 즉 영적, 심미적, 혹은 지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후자와 같은 고등한 욕구들 또한 재화의 소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워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화의 소비에 대한 이런 순진한 의미로부터 크게 동떨어진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비로소 재화의 축적을 부추기는 유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의 근간을 이루는 동인은 바로 모방이다. 부의 점유에는 명예가 따른다. 그것은 차별적이고 시샘을 일으키는 구별짓기이다. 재화의 획득이나 부의 축적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도 이만큼 설득력 있는 다른 설명은 없다.

재산의 축적이 대중적 존경의 기초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편안한 자세의 필수 요소가 된다. 재화가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다고 느끼는 계층의 다른 사람들만큼 최대한 많은 양의 재화를 축적해야 한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축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만족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새로운 재화를 축적해서 새로운 수준의 부에 익숙해지자마자, 현재의 풍요는 예전보다 더 큰 만족감을 더 이상 주지 못한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의 소비 상태는 새로운 만족의 기준이 되고 이웃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새로운 금전적 잣대가 된다. 소비의 목적은 금전적 능력에 있어서 집단 내의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 비교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평범한 개인은 만성적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불만족하며 살 것이다. 자신이 속한 계층의 정상적인 금전적 수준에 올랐다면, 이전의 만성적 불만족은 이제 자신과 평범한 이들 사이에 좀 더 넓은 간격을 벌리고자 하는 쉴 틈 없는 긴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 차별적이고 시샘을 부르는 비교는 결코 그를 만족시킬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

[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시간의 문제(time-engine)'이다. 요컨대, 먼 미래를 위해 보상받기를 미루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핵심이다. 베버가 관료제를 분석하면서 '쇠창살의 비밀(the secret of iron cage)'이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 시간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미래에 보상을 받을 것이란 희망으로 고정된 제도

속에 스스로를 속박시킨다는 게 베버의 해석이었다. 보상의 지연을 통해 사람들은 절제하게 된다. 좋은 싫든 사람들이 직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도 나중에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들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명예나 위신을 얻게 되려면 신뢰할 만한 특정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다. 미래의 보상을 보장해줄 수 있을 만큼 조직의 안정성이 높아야 하고, 나중에라도 직원들의 그간 업적을 제대로 평가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은 당장의 보상을 나중에 미루는 금욕을 부질없는 것처럼 만든다. 노동과 이후의 보상을 보장할 제도를 연계해주는 사람도, 조직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기가 하강기로 접어들면 호황 국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던 현상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황기에 상류층은 중·하류층에 비해 운신의 폭이 훨씬 크다. 불황기에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진은 서로 인맥과 학맥 등 관계망을 활발히 가동할 수 있어 노동자들에 비해 위기에서 발을 빼기가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되면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가 ‘달아나는 신(神)’이라 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관료제의를 속에서 노동자들이 나중에 기약하고 열심히 일해 온 것을 평가하고 보상해줘야 할 직장의 경영자와 상사들이 달아나고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이테크회사나 금융과 미디어 분야에서 나타나는 경영진의 잦은 이동과 교체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며 금욕한들 나중에 이를 제대로 평가할 책임자가 없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미국과 유럽에서 민간 연기금들이 잇달아 무너지고 정부의 국민 연금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보상의 지연이란 제도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핵심은 이같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였다.

힘을 잃게 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사람들 각자의 미래 설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학자 마이클 래스커웨이가 1970년대와 오늘날의 젊은 성인층의 직업 설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두 집단 모두 대학교육을 받았고 포부도 컸다. 하지만 이들 두 집단은 자신들의 포부를 어떤 직업을 통해 펼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30년 전의 젊은이들은 장기적인 전략에 기초한 반면 요즘 젊은이들은 당장의 전망을 중시했다. 무엇보다도 이전 세대는 자신의 목표를 조리 있게 설명했지만 요즘 세대는 왜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이전 세대는 미래에 얻게 될 궁극적인 보상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었던 데 비해 요즘 세대의 입장은 훨씬 모호했다.

[라] 터키 알라니아 근해의 어장은 비교적 영세한 어장이다. 알라니아의 일백여 어민들은 여러 종류의 어망을 사용하면서 개인별로 두세 척의 어선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다. 어민의 절반은 지역 생산자 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1970년대 이전의 ‘암흑시대’에는 알라니아 어업의 경제적 활력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어장의 무절제한 이용으로 어민들 사이에 적대감, 때때로 폭력적 갈등이 생겨났다. 둘째, 보다 좋은 조업 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어민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조업 비용이 증대되었고, 특정 어선의 잠재적 어획량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지역 조합원들은 현지 어민들에게 조업 구역을 배정하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조업 위치 간의 간격을 충분히 설정하여 각 조업 위치에서의 산출량을 최적화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가장 좋은 위치에서 고기잡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어선에 동등하게 부여한다. 이 시스템 하에서 조업 위치를 물색하고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자원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으며, 과잉 조업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조업 위치를 적은 목록은 각 어민의 확인을 거쳐, 한 해 동안 시장이나 지역 경찰이 보관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감시 및 집행은 조업 구역을 운번제로 지정함으로써 생겨난 인센티브의 부산물로서 어민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에서 조업할 차례가 된 어부는 그날 아침 어로 장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려 할 것이다. 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의 조업권을 가진 어부는 동이 트자마자 자신의 조업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따라서 그날 고기가 덜 잡히는 위치에 배정된 어부가 몰래 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로 옮겨 간다면 이는 틀림없이 발각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좋은 자리에서 조업할 차례가 된 어부에 의해 목격될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경우 이 어부는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할 것이다.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들도 이 어부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래야만 좋은 자리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소비 양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0점]

2 제시문 [다]와 [라]의 시각에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각각 요약하고 그 해결책을 설명하시오. [40점]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기사의 일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의 시간제 근로자수가 43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 편의점이나 식당, 주점, 커피전문점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청년층의 시간제 근로자 수 급증세는 젊은 세대의 저임금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된 통계 자료가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는 2004년과 2011년의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시간제근로자의 수, 또한 각 지표의 비중 및 증감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2004년			2011년				
	임금근로자 A	시간제근로자 B	비중 B/A	임금근로자 C	증감 (C-A)/A	시간제근로자 D	증감 (D-B)/B	비중 D/C
① 계	14,584	1,072	7.4%	17,510	20.1%	1,702	58.8%	9.7%
② 15-19세	233	81	34.8%	229	-1.7%	121	49.4%	52.8%
비중 ②/①	1.6%	7.6%		1.3%		7.1%		
③ 20-29세	3,847	219	5.7%	3,427	-10.9%	318	45.2%	9.3%
비중 ③/①	26.4%	20.4%		19.6%		18.7%		
④ 30-39세	4,446	266	6.0%	4,789	7.7%	256	-3.8%	5.3%
비중 ④/①	30.5%	24.8%		27.4%		15.0%		
⑤ 40-49세	3,581	243	6.8%	4,647	29.8%	336	38.3%	7.2%
비중 ⑤/①	24.6%	22.7%		26.5%		19.7%		
⑥ 50-59세	1,722	133	7.7%	3,058	77.6%	283	112.8%	9.3%
비중 ⑥/①	11.8%	12.4%		17.5%		16.6%		
⑦ 60세 이상	756	130	17.2%	1,360	79.9%	389	199.2%	28.6%
비중 ⑦/①	5.2%	12.1%		7.8%		22.9%		

[청년층 상세]

②+③ 15-29세	4,080	300	7.4%	3,655	-10.4%	439	46.3%	12.0%
비중 (②+③)/①	28.0%	28.0%		20.9%		25.8%		
⑧ 20-24세	1,548	138	8.9%	1,110	-28.3%	(-)		
비중 ⑧/①	10.6%	12.9%		6.3%		(-)		
⑨ 25-29세	2,299	81	3.5%	2,317	0.8%			
비중 ⑨/①	15.8%	7.6%		13.2%		5.9%		

[표]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단위: 천 명)

(1) [표]의 아랫부분에는 기사에서 '청년층'이라고 지칭한 15-29세 집단 중 20-24세와 25-29세 소집단의 상세 자료가 일부 나와 있다. [표]에 (-)과 (L)으로 표시된 부분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2004~2011년 사이 청년층(15-29세) 시간제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청년층의 비중은 오히려 2.2%포인트(28.0% → 25.8%) 줄어들었다. 이 비중 감소는 크게 외부적 요인(청년층이 아닌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난 변화)과 내부적 요인(청년층에 속한 각 소집단들에서 나타난 변화)으로 나누어 설명해볼 수 있다.

각 연령대 및 청년층 내 소집단이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2004~2011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검토하여, (i) 외부적 요인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연령대 집단과 (ii) 내부적 요인에 가장 크게 기여한 청년층 내부 소집단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5점]



이화여자대학교

답안지(인문Ⅱ)

※감독위원 확인란

소 속 고 교

성 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예:930512)

A	A	0	0	0	0	0	0
B	B	1	1	1	1	1	1
C	C	2	2	2	2	2	2
D	D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6	6
		7	7	7	7	7	7
		8	8	8	8	8	8
		9	9	9	9	9	9

0	0	0	0	0	0
1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6	6
7	7	7	7	7	7
8	8	8	8	8	8
9	9	9	9	9	9

문제1번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1, featuring horizontal dashed lines.

문제2번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2, featuring horizontal dashed lines.

